

#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관련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 개최

### 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대상 실시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최근 탈북자 모자 사망과 관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

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월세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가구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

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해 연계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의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장기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 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 순천시 주암면 주민자치회 “지역민의 복지는 우리가 챙긴다”

### 봉사단체 연계...어르신에 맞춤형 돌보기·화재감지기·소화기 지원



순천시 주암면(면장 황태주)에서는 최근 국제구호 NGO단체인 월드쉐어가 후원하고 주암면 주민자치회(회장 오영식)와 ‘오렌즈 안경원 중앙점’이 함께 한 어르신 맞춤형 안경전달과 순천제일대 ‘화동이봉사대’가 구산마을 등 5개 마을 전 세

대에 화재경보기 150개, 가정용 소화기 150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순천제일대학교 화동이봉사대 학생들은 마을 내 경로당과 쉼터를 비롯해 화재에 취약한 목조 주택, 화재 취약계층 집 등을 방문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

기를 설치하고, 여름철 화재 예방법과 소화기 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마을이장, 주민자치회위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주암면 행정복지센터까지 모시고 나와 시력검사를 통해 돌보기를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조영식 주암면 주민자치회장은 “도움을 준 월드쉐어, 화동이봉사대, 오렌즈안경원 중앙점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황태주 주암면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주민들에게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지역 안에서 노력하는 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장애인 등록 취소 통보없이 ‘표지 사용’ 벌금부과는 잘못” 권익위 “이의신청 기회도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등록 취소를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계속 사용했는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지적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돼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A씨는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표지를 불법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등급의’ 결정이 나와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 서울에 첫 청각장애인 전용 성당...마장동 에파타성당 건립

### 25일 염수정 추기경 주례 축성식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당이 서울에 처음 세워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에파타성당(주임 박민서 신부)을 건립하고 오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축성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에파타성당은 2017년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담당 박민서 신부, 이하 농아선교회) 60주년을 맞아 첫 삽을 뜬지 2년 만에 완성됐다. 성당은 대지 886㎡(약 268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405㎡(약 727평) 규모로 대성전과 소성전, 언어청각치료실, 작은 피정의 집 등을 갖췄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한 특징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미사를 봉헌하는 300석 규모의 성당 어디서든 수화가 잘



에파타성당 조감도.

보일 수 있게 계단식으로 지어졌다. 가로 3m, 세로 1.8m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주례 사제의 수화와 자막도 함께 볼 수 있다. 제대 벽면 대형 십자가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걸었다.

에파타성당 건립은 아시아 최초 청각장애인 사제인 박민서 신부의 노력이 컸다. 박 신부는 농아선교회담당으로 수유

동 툫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건물을 빌려 미사를 집전해왔다.

그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성당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금 마련에 나섰다. 그는 전국 각지의 150여개 성당을 방문해 후원미사를 봉헌했다. 신자들도 자선바자회, 음악회 등을 열어 노력했다.

성당 벽면에는 박 신부의 자필도 새겨졌다. 취미가 서예인 박 신부는 1개월에 걸쳐 요한복음 6장의 600자를 직접 썼다.

박 신부는 “많은 응원을 보낸 신자들이 덕분에 성당이 완공될 수 있었다”라며 “‘열려라’라는 뜻의 에파타가 성당이름인 것처럼 우리 성당도 모든 분께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각장애가 없는 신자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1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